

7. 서 만주에서 유래한 몽골족: 돌궐족을 포섭하고 거란족을 흡수

Motivational Episodes

타림분지 Qocho 위구르의 왕은 1209년에 재빨리 징기스칸(r.1206-27)에 자진 복속하여 사위가 되고 징기스칸의 다섯 번째 아들이라 불리면서, 끝까지 저항하다 몰살된 서하(西夏)와는 달리, 자치권과 특권을 누렸다. 터키족 출신인 Timur(r.1347-1405) 대제는 당시의 관행을 따라 징기스칸의 후손을 명목상의 칸으로 세워놓고 아미르(Amir 지휘관) 칭호로 만족해야 했다. Timur는 경쟁자 Amir Husayn을 죽이고 징기스칸의 후손인 그의 처(Qazan칸의 딸)를 자신이 차지한 다음, 즉시 자신에게 Güregen(몽골어 *Kürägän*), 즉 "징기스칸 집안의 사위"라는 칭호를 스스로 부여했다.¹ 서구학자들은 터키족 Timur의 증손자 Babur(1483-1530)가 인도에 세운 제국을 무작정 Mughal(=Mongol)제국 이라고 부르지만 무갈왕조(1526-1857)의 지배자들은 Babur의 모친이 징기스-차가타이 후손이란 근거에 입각 해 자신들을 항상 "부마국" 이라고 불렀다.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r.1260-94)는 무신정권(1170-1270) 하에 유명무실 하게 된 고려 왕실에 몽골 황족 피를 수혈 하여 다스릴 생각으로 원종의 세자(충렬왕 r.1274-1308)에게 딸을 주어 부마국으로 만들었다. 요절한 황태자 진김(眞金)의 3남이며 쿠빌라이의 손자인 성종(r.1294-1307)이 원 6대 황제가 되자 충렬왕은 황제의 고모부 별이 되었다. 1296년, 충렬왕의 아들인 26대 충선왕(r.1308-13)은 진김의 장남인 진왕(晉王)의 딸과 결혼을 했으나 몽골 평민 출신인 의비(懿妃)와 사이에서 27대 충숙왕(r.1313-39)을 낳게 된다. 1316년, 충숙왕은 쿠빌라이의 6남인 운남왕(雲南王)의 손녀 딸과 결혼했다가 그녀가 죽자 1324년에 진김 차남의 장자 위왕(魏王)의 딸과 결혼을 했으나 역시 후사를 얻지 못하고 공원왕후 홍씨로부터 28대 충혜왕(r.1339-44)과 31대 공민왕(r.1351-74)을 얻게 된다. 충혜왕은 쿠빌라이의 7남인 서평왕(西平王)의 차남 진서무정왕(鎭西武靖王)의 손녀와 결혼을 하여 29대 충목왕(r.1344-48)을 낳고 또 희비 윤씨에게서 30대 충정왕(r.1349-51)을 낳는다. 1351년, 공민왕은 위왕(魏王)의 손녀와 결혼을 한다. 모두 6명의 징기스칸 직계 공주들이 고려 왕들에게 시집을 와서 2명의 고려 왕을 낳은 셈이다. 충숙왕의 몽골 모친은 황실 공주가 아니었다. 일종의 보복이라 할까, 고려의 여인이 1340년에

¹ 티무르 대제는 자신을 징기스칸과 차카타이의 후손이며 계승자라고 공언하였으나, 사실은 트랜스-옥사니아 지역의 돌궐 귀족계급 출신이었다. 티무르의 정복 위업은 징기스칸 군대의 규율 속에서 탄생한 돌궐 군사에 의해 수행된 것이었다.

원나라 마지막 황제(順帝 r.1333-1368)의 두 번째 황후인 기황후(奇皇后)가 되었다. 첫 번째 황후는 역모에 연루되어 출궁 당했었다. 그녀의 새로운 지위가 원-고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여 당시 원 조정 내의 많은 대신들이 그녀의 제2황후 추대를 반대를 했었다. 그녀가 낳은 황자가 1353년에 정식 후계자로 옹립되어, 원 멸망 후인 1370년에, 북원의 황제가 되는 것이다. [A.7.2.]

서 만주 거란선비의 후예인 실위-몽올(室韋蒙兀)족의 몽골제국 건설

북사(北史), 수서(隋書),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의하면, 우문선비(宇文鮮卑) 부족은 344년에 모용선비(慕容鮮卑) 부족에게 패해 거란(契丹), 고막해(庫莫奚), 실위(失韋) 등으로 분열되어 흩어졌었다(散亡).

요서에 의하면, 거란의 시조 야율 아보기(872-926)는 일찍이 7개의 북만주 실위 부족을 복속 시켰다. 901-9년 기간 중에도 6차례나 실위를 공격해서 일부는 거란선비 연합체에 흡수시켰고, 일부는 서쪽으로 쫓아 냈다.² 마치 394년에 탁발선비 북위(386-534)가 서 만주 유연부족을 몽골초원으로 쫓아내 강력한 유목 제국(402-552)으로 변신시켰던 것처럼, 아보기도 실위-몽올족을 쫓아내, 200여 년 후 징기스칸(r.1206-27)의 몽골 제국으로 나타나게 만든 것이었다.

징기스칸이 1206년에 몽골초원 부족들을 모두 통합하기 이전의 몽골족은, 북만주로부터 새로 이주 정착한 약소 부족에 속했으며, 금 조정의 정치적 통제를 받았었다. 징기스칸의 조부와 부친은 모두 금나라 조정으로부터 벼슬을 받았었고, 그 자신도 변방 외신으로 금 조정에 배알을 했었다.³ 징기스칸의 등장은, 동만주 출신의 북중국 정복국가 서 만주에서 유래한 몽골초원 통일 세력과의 대결에서 멸망된다는, 특이한 상황을 전개시켰다. 한쪽 조정과는 달리, 여진족 금 조정은 갈취에 순순히 응하거나 신속(臣屬)을 하지 않고, 왕조 자체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몽골족에 대항해 싸웠던 것이다.⁴

² Xu (2005: 183), Drompp (2005: 200-1) 참조.

³ Franke and Twichett (1994: 10, 14), Ratchnevsky (1991: 7, 9, 12, 14, 16) 참조.

⁴ Tao (1976: 92-94) 참조.

돌궐족은 1세기 말 북 흉노의 궤멸로, 또 7세기 초에 당 태종(626-49)의 공격으로 이미 상당수가 서방으로 달아났었다. 이제 만주족 (요-금) 왕조와 신생 몽골 세력의 압력 때문에, 잔존 돌궐부족 중 많은 수가 또다시 서쪽으로 달아나게 되었다. 이들은, 본의 아니게, 몽골족의 유라시아 정복 통로를 미리 개척하고, 범-유라시아 몽골제국 출현을 위해 초원에 고속도로를 깔아준 꼴이 되었다.⁵ 유라시아 초원 전역에 정착해 있던 투르크 부족 들은, 거의 모두 몽골 군대에 포섭되어, 제국 건설에 동원되었다. 동일한 동호-선비 후예인 거란족은, 몽골족에 완전히 흡수 융합되어, 몽골 통치 이후 아예 독자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역사에서 자취를 감춘다.⁶

한족이 선비족의 복위, 거란족의 요, 여진족의 금과 대치했을 때에는 중국대륙 남쪽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몽골족은 한족 왕조를 완전히 소멸시켰다. 한족 국가의 영역 전체를 완전히 정복해버린 것은 훗날 만주족 청 나라에 의해 모방되는 것이다. [A.7.1.]

쿠빌라이는 중국의 황제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징기스칸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모든 제국을 통괄하는 몽골 제국의 칸이었다. 몽골족에 의한 세계 평화(Pax Mongolica) 체제가 실현된 것이었다. 만주로부터 카스피해에 이르기까지, 대상(隊商)들의 왕래가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철권적 규율이 적용되었다. 20만 마리의 말들이 역참(驛站)에 배치되어 제국의 우편 왕래 서비스를 수행했다.

몽골 부족의 병민일체 사회-군사 조직: 동만주 여진족 체제를 도입

서 만주로부터 이주한 실위-몽골 족은 오랜 기간 금의 정치적 영향 하에 살았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여진족의 사회-군사 제도를 답습하게 되었다. 징기스칸은 병사의 수가 1000명이 넘는 부족 또는 씨족은 1000 명 단위로 분할을 하여 몇 개의 기초단위 멩안 부대들을 조직했다. 1000명이 안 되는 멩안은 다른 씨족이나 부족에 흩어져 있는 친척들, 심지어는 전쟁 포로까지 끌어 모아 채워 졌다. 15살 에서 70살까지의 성인 남자는 모두 전쟁에 동원이 될 수 있었다. 징기스칸은 배반과 이합 집산이 다반사인 몽골 부족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하여, 친족과 자신에 충성하는 유능한 부하들이 지휘 하는 중앙

⁵ Franke and Twitchett (1994: 12), Ratchnevsky (1991: 73) 참조.

⁶ 김한규 (2004: 504, 510, 553-6) 참조.

집권적 군대 조직을 창출했다. 각 부대 단위 별로 목초지가 배정 되었고, 병사들의 가족은 모두 동일한 지휘체계에 편입되었다. 세습 지휘관들은 봉건 귀족이라기보다는, 장교단을 구성했다. 천인(千人) 장들의 수입은 그들이 관할하는 자급자족형 군인 가족들로부터 징수하는 조세와 전쟁에서 획득하는 전리품에 의존하였다. 원 제국 수립 이후, 이들 지휘관은 급료를 받는 세습 귀족이 되었다. 징기스칸의 군대 조직은, 여진족의 맹안-모우케 조직과 마찬가지로, 전 몽골족을 대상으로 하는 병민 일체의 사회-군사 조직인 것이다.⁷

일찍이 복송의 태조는 정치적 특권 계층의 자제를 포함하는 정예군을 (상호 견제를 위해 독립적인 몇 개의 부대로 분리) 조직해 금군(禁軍)으로 삼아 그 절반을 수도에 주둔시키는 방법으로 영향력 있는 집안의 충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의 반란과 왕위 찬탈 기도를 억제할 수 있었다. 징기스칸 역시 충성심이 입증된 지휘관들의 어린 동생이나 자제들, 몽골 전역의 귀족 가문의 자제들, 또 항복한 나라의 왕들에게서 받아낸 볼모들로 1만 명 정원의 친위대(Kesig)를 구성 하여 자신의 호위는 물론 황실의 가사를 돌보도록 하였다. 이 친위대는 일종의 인질 집단이며, 장래 고위 관직에의 임명이 약속된 어린 귀족들을 위한 사관학교이자, 미래의 지배계급을 양성하는 특권적 견습 도제 기관이었다. 칸이 귀족들과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유목 부족장들의 느슨한 연맹체를 중앙집권적 전제국가로 전환시키는 초기 형태의 통치업무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 하였다.⁸

몽골 지배자 자신들은 샤머니즘 전통을 지키면서 불교를 (특히 라마를) 중시하기는 했지만, 피정복자에게는 모든 종교를 관용 했다. 몽골 지배자들은 몽골어로 주요 정무를 수행하고; 궁전 마당에 천막을 치고 살며; 몽골 초원에서 여름을 보내고; 피나는 권력 투쟁을 통해 황제를 선택하는 전통을 유지하면서 중국화 현상을 막으려 노력했다. 쿠빌라이는 중국인과의 결혼을 억제하였으며, 자신도 몽골 여인만을 후궁으로 들였다. 원 나라가 망한 후, 몽골 지배자들은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고, 미련 없이 군대와 함께 몽골 초원으로 달아나 버린 것이다.⁹ 1368년, 자신들 본 고장으로 도망을 해 온 몽골족은 북원(北元)을 세웠고, 만주족 청나라에 복속될 때까지 분열된 상태로나마 명

⁷ Hsiao (1978: 3-4, 8-14, 25, 37, 254), Tao (1976: 29, 47, 115-6), Rossabi (1988: 6), Franke and Twitchett (1994: 602) 참조.

⁸ Hsiao (1978: 33-39)

⁹ Janhunen (1996: 166) 참조.

맥을 이어갔다. [A.7.3.]

이한치한(以漢治漢) 원칙을 무시한 원 제국: 한족 농민 반란에 의한 축출

정복 후, 주요 거점 지역에는 몽골 군호(軍戶)가 주둔했고, 만주, 몽골, 투르키스탄, 티베트는 만리장성 아래의 중국 본토에서 적용된 것과는 전혀 다른 행정 조직으로 지배했다. 몽골족 일상생활에 한족의 전통적 문화와 관습이 침투하기 이전에 이미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행정-통치 기술과 기독교-이슬람교 문화에 접했기 때문에, 몽골 정복자들은 한족 들로부터 새삼 통치 문화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¹⁰ 몽골 통치자들은 한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하고 불신만 강했기 때문에, 요-금 같이 한족 관료조직에 의존하지 않았다. 한족 통치기구의 고위직뿐 아니라 상당수의 지방 관리직마저도 몽골 또는 중앙 아시아 색목인(色目人)이 독점했고, 지방정부의 하급 관료직에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패한 한족 서리(胥吏)들을 임의로 기용했다.¹¹

1315년에 부활된 과거제도는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송 대에 형성된 한족 대지주 사족(士族)의 관료 진출 기회가 최소화되었다. 송뿐만 아니라 금 때에도 진사 급제자 정원이 300-400명에 달했었다. 반면, 몽골 원은 3년에 한번씩 회시(會試)를 보아 진사 정원 100명을 합격 시켰는데, 그나마 몽골인, 색목인, (북중국) 한인, (남중국) 남인을 각각 25명으로 배정했다. 한인-남인은 진사에 합격해도 하급 관료 노릇을 했다.¹²

남송 멸망 후 전쟁이 없는 세월이 지속되자, 몽골 군호는 왕년에 떨쳤던 용맹

¹⁰ Ledyard(1983: 348)

¹¹ Franke and Twitchett (1994: 41, 587-600, 639), Hsiao (1978: 51), Wittfogel and Fêng (1949: 462-3), Lorge (2005: 94), Eberhard (1965: 126) 참조.

¹² 1315-35와 1341-68년 기간 중, 16차례에 걸쳐 정원에도 미달하는 1,200여명의 진사를 선발했다. 金諍 (2002: 232-6), Fairbank and Goldman (1992: 122-123) 참조.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비록 정주도학이 북송 중엽에 생겨나 남송 주희에 와서 집대성되었다지만, 과거제도를 통해 통치 도구로 채택된 것은 원 나라 때라는 것이다. 남송 말기에 주희의 주석을 쓰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원대 과거 시험의 경의(經義)는 오로지 주희가 정한 4서(四書)에서만 출제되었고, 수험생은 정주(程朱)의 주소(註疏)만을 따르고 인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사상적 획일화는 명-청에 계승되어, 한족 지식인들의 사고를 근시안적으로 경직화시켰다. 金諍 (2002: 242-3) 참조.

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몽골 지배층은 분열되어 제위 승계 투쟁에 몰입했다. 과거에 북 중국에 주둔을 하면서 농토와 노예를 배정받은 여진족 멩안-모우케 병사들은, 훗날 청 나라의 팔기군들 모양, 비록 힘은 들었지만 영농 생활을 하면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다. “여진족과 만주족은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소규모이나마 영농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몽골 족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몽골 병사들은 중국 땅에서 적정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다. 귀족계급을 형성하는 몽골 장수들의 후손은 능력에 무관하게 대대로 지휘관직을 세습하였고, 가난해진 군호와의 유대감은 사라졌다.¹³

원 제국은, 대지주-사족 출신 한족관료의 제도적인 완충 장치가 없이, 정복 계급이 직접 (무지하고 부패한 한족 서리들을 거느리고) 한족 모두를 하층민으로 취급하는 통치를 했다. 몽골 정복자는 흥노족의 후조(319-52) 모양 결국 한족 반란으로 축출되었고, 한족 농민-유생(儒生) 사이에 이민족을 혐오하는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었다.¹⁴ 그때까지 2원-통치조직을 바탕으로 (협력자로 포섭된 대지주-호족 출신 한족관료를 통해) 한족을 다스렸던 선비-여진족 정복왕조들은 단 한번도 지식계급의 지지를 받는 농민반란으로 멸망된 적이 없었다.¹⁵ 결과적으로, 후에 한족 명 왕조를 정복한 만주족 청 왕조는 한족을 단순히 “한족식으로” 다스린 다기 보다, 한족 송-명 왕조보다도 한술 더 뜨게 정주도학 유교 이념을 내세워 한족을 다스릴 수 밖에 없었다.

¹³ Hsiao (1978: 20, 26-7) 참조.

¹⁴ Wittfogel and Fêng (1949: 9), Hsiao (1978: 51) 참조.

¹⁵ 당 나라도 구차스럽게나마 황소대란(875-84)을 극복하고 명맥을 유지하다가 황소(黃巢)의 부하로 당에 항복한 한족 주전충(朱溫/全忠 852-912)에게 왕조를 찬탈 당했던 것이다.

Appendix 7. 몽골제국, 한반도, 한족 명 왕조

A.7.1. 몽골제국의 건설

몽골초원의 흉노-돌궐은 전통적으로 한족 왕조에 대해 갈취 전략을 사용했었다. 징기스칸의 초기 목표 역시 중국본토의 정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러나 당시 북 중국을 차지하고 있던 만주족 금 조정은 한족 모양 갈취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왕조 자체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몽골에 대해 싸웠다. Janhunen(1996: 134)은 “동 아시아에서 몽골의 정복이 쉬웠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서하와의 전쟁은 20년간 (1207-27) 지속 되었고, 금과는 24년 (1210-34), 고려와는 40년 (1219-59), 남송과는 44년간 (1235-79) 전투가 지속 되었다”고 말한다. 몽골이 금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1209년이고, 북경을 함락시킨 것은 1215년이었으나, 19년이 지난 1234년에 가서야 비로서 남쪽 개봉으로 수도를 옮겼던 금 나라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다.

몽골족은 모두 합해 150만 명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란족, 위구르족, 티벳족, 터어키족, 페르시아인, 한족, 등을 포함해)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모든 종족들을 되도록이면 전부 다 몽골 군대에 편입 시키고자 노력했다. 예컨대, 항복한 송나라의 장수 하나가 하천에서 싸우는 함대를 건조하는 작업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몽골군이 하천과 운하가 많은 남중국 정복을 좀더 빨리 마칠 수 있었다. 많은 신부군(新附軍, 항복한 남송군)이 몽골족, 거란족, 여진족, 고려인, 혹은 북중국 한족 등의 지휘를 받는 새로운 부대로 조직되었다.¹⁷

바투(1227-55)가 (징기스칸의 유언에 의해 자신에게 특별히 할당된) 단지 4천명에 지나지 않는 순혈(純血) 몽골군을 이끌고 1236-41년 기간 중 유럽 침공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여, 흑해와 코카서스 북쪽의 초원지대를 포함하는 고대 스키타이 지역 전체를 점령하고 러시아 공국들을 복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오래 전에 이 지역에 이주 정착한 돌궐족들을 포섭하고 동원할 수 있었

¹⁶ Jagchid and Symons(1989: 19-20)에 의하면, “징기스칸(1206-27)은 금 나라와 변경 교역 및 조공을 확보하여 중국으로부터 필수품을 얻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 일단 교역과 조공 확보의 길이 막히자, 징기스칸에게는 전쟁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 징기스칸이 1213년에 북 중국 평원에 진입하여 중도(中都 북경)를 에워 쌓을 때, 그의 목표가 영토적 혹은 정치적 지배보다는 물자 확보에 있었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보면 명백하게 나타난다. 당시 금나라 조정으로부터 대규모의 선물을 받고, 주변 지역을 약탈한 다음에, 징기스칸은 몽골고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징기스칸은 영토를 점령할 생각은 없었고, 단순히 전리품을 얻어 부하들에게 나누어주려 하였다. ... 그러나 1236년, 몽골 조정의 거란족 출신 고문인 옐루추차이(耶律楚材)와 ...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몽골의 정책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옐루추차이는 오고타이(r.1229-41) 칸에게 귀족들이 백성들로부터 멋대로 강탈을 하게 내버려 두지를 말고 조정이 관료들을 임명하여 매년 직접 세금을 걷어 들이고 연말에 이를 귀족들에게 분배하도록 권고하였다.”

¹⁷ 핵심을 이루는 몽골족 군대에 추가하여, 신부군, 여진군, 거란군, (심양) 고려군, 기타의 군대들이 있었다. Hsiao (1978: 15-6, 74, 174) 참조.

元史 卷九十八 志第四十六 兵一 ...其繼得宋兵 號新附軍 又有遼東之紮軍 契丹軍 女直軍 高麗軍 ...

기 때문이었다.¹⁸

몽골족은 신속하게 항복을 받아내고 반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량 학살이라는 공포 작전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도시를 불사르고, 농토를 파괴하여 목초지로 만들었다. 동 이란의 경우, 인구의 4/5가 학살되었다. 몽골족의 야만성은 정주(定住) 농경문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1234년에 금 나라를 정복할 즈음, 몽골족은 수많은 문명사회 출신 자문관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미 이민족의 지배에 익숙해져 있던 북 중국에 제국을 세워 통치하는 기술도 습득할 수 있었다.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1260-94)는 1264년에 수도를 몽골고원의 카라코룸에서 북경으로 옮기고, 남송을 멸망 시키기 8년 전인 1271년에 자신을 원 나라(1206-1368)의 황제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A.7.2. 왕조의 실체를 보전한 고려

1170년, 고려에서는 문관 전횡에 불만을 품은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 많은 수의 거만한 문관들을 처형한 다음, 새로운 왕(明宗 r.1170-97)을 옹립하고, 무단 정치를 개시하였다. 고려의 무신 지도자들은, 100여 년 후, 몽골 침입의 여파로 몰락하게 된다. 일본열도에서는 1192년에 수립된 무신정권이 1867년까지 지속된다.

13세기 초, 여진족 금 나라는 몽골의 거둬지는 침공을 당하고 있었다. 거란족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을 얻고자 하였으나, 금의 수도가 1215년에 함락된 후, 몽골의 압력은 거란족을 고려 땅으로 밀어냈다.¹⁹ 몽골-고려 연합군은 1219년에 거란족을 쳐 부셨으나, 이 사건 이후, 몽골은 고려 조정에게 대규모의 조공을 바칠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고려는 몇 차례 조공을 거절하여, 1231년 이후, 일련의 몽골 침략을 초래했다. 무신정권은 농민들에게 산성 올라가 저항을 계속하라고 명령을 한 다음 강화도로 피신하여 몽골에 완강하게 저항을 했다. 1259년, 고종(r.1213-59)의 세자(원종 r.1259-74)를 보내 몽골과 강화를 시도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270년, 고려 조정은 무신 지배자들을 축출한 무신 정권하에 몽골에 항복을 한 다음 개성으로 귀환 했다.

쿠빌라이는 1274년에 자신의 딸을 고려 왕 세자에게 시집 보냈다. 그 후, 고려의 왕위 계승자는 원 나라 황실의 공주를 정비(正妃)로 맞아야만 했다.²⁰ 원나라의 부마(駙馬)국 형태로 고려 조정은 독립국가의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²¹ 부마국으로 첫 번째 임무는 일본열도의 가마쿠라

¹⁸ 정복한 킵차크 돌궐족 거주지역 한 북판인 카스피해 부근 불가강 하류에 수도를 둔 바투의 킵차크 칸 제국은 역사책에서 골든 호드(알탄 오르도)라 부른다. 유럽의 이들 몽골 지배자들은 동화되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징기스칸의 제국들이 중국, 페르시아, 투르키스탄 등지에서 모두 축출된 다음에도 계속 명맥을 유지해, 1502년까지 유럽 땅에 진을 치고 존속했다.

¹⁹ Lee (1984: 148) 참조.

²⁰ Henthorn (1972: 123) 참조.

²¹ 몽골은 고려 왕실의 지손(支孫)을 데려다 요양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하여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그 지역 고려인 사회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훗날 고려의 군주들은 “심왕(瀋王)”이란 명칭으로 요양 지역에 대한 형식상의 통치권을 부여 받았다. Henthorn (1972: 123) 참조.

막부(1192-1333)를 굴복 시키려고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시도된 몽골의 원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 척의 배를 건조하고, 군사와 함께 막대한 보급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었다.²²

고려 조정에서 절대권력을 휘둘렀던 기 황후의 형제는 주원장이 남경을 점령한 1356년에 공민왕에 의해 제거되었다. 그 해, 고려는 함경도 쌍성에 있는 원나라의 군 사령부를 공격하기 위해 원정군을 보냈다. 당시 그 지방의 토호이며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의 협조는 고려가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성계(1335-1408)는 함경도에서 3대에 걸쳐 천호(千戶) 장을 지낸 군인 집안의 5대손이었다. 기 황후는 끈질기게 황태자를 쫓아, 1364년에 원정군을 보내 고려 왕의 교체를 시도했다. 하지만 몽골 원정군은 오히려 고려군에게 전멸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서의 몽골 영향력은 소멸되었다.²³

1368년, 기 황후 일족이 만주 지역에 흩어져 있던 원 나라 피난민들을 모아 일족의 몰락을 복수하고자 하였을 때, 공민왕은, 고려가 옛 고구려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요하 동쪽의 모든 땅을 지배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전통적 주장을 새삼 내세워 군대를 보냈고, 최영은 1371년에 요양을 점령하였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얻은 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군을 시켰다. 1387년, 명나라 군대가 요동지역으로 진주하여 논쟁의 여지를 영구히 제거시켜 버렸다.²⁴

고려에서의 몽골 지배는 이미 1356년에 끝이 났었다. 1368년, 원나라 지배자들은 몽골 고원으로 달아나 북원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명나라 군대가 요양지역을 점령하는 1387년까지 요하 유역을 계속 지배했다. 1388년, 신생 명 나라는 원의 총관부(雙城總管府)의 지배를

²² 고려사절요를 본다. 1274년 5월, 고려 왕 세자가 쿠빌라이의 딸과 결혼을 했다. 7월, 원은 세자를 왕으로 책봉했다. 11월, 몽골군-한군 2만5천 명 (원 정동군 1만5천 명 포함), 고려 군사 8천명, 수군 6천7백 명, 전함 900여 척의 원정군이 합포를 출발했다. 1280년 11월, 고려는 병선 900척, 군사 1만 명, 수군 1만5천명을 준비했다. 1281년 3월, 원은 “부마국왕 선명 정동행중서성”인장을 보내주었다. 5월, 4만 명의 몽골-한-고려 군이 합포를 출발했다. 전세가 불리했다. 6월, 남군 전함 3천5백 척, 군사 10만 명이 일기도에서 합류했으나 태풍으로 전멸했다.

²³ 元史 卷一百一十四 后妃一 完者忽都皇后奇氏 高麗人 生皇太子愛猷識理達臘...初...進爲宮女...立爲第二皇后 初奇氏之族在高麗者 怙勢驕橫 高麗王怒 盡殺之 [至正] 二十三年 后謂皇太子曰 汝何不爲復讎耶? 遂立高麗王族入留京師者爲王...用兵一萬...過鴨綠水 伏兵四起 乃大敗 餘十七騎而還 后大慚... 二十五年...皇后崩...后宜正位中宮 帝不答...二十八年 從帝北奔

新元史 卷二百四十九 列傳 第一百四十六 外國一 高麗 至正十三年 [1353] 冊立皇太子...太子奇皇后所出也 奇氏高麗人本微賤...皇后兄子奇轍爲大司徒富貴震一時... 十六年 有密告奇轍潛通 雙城叛民謀逆 殺之 夷其族... 二十三年 皇太子欲爲奇皇后復仇 乃立德興君...爲國王... 發遼陽行省兵送之... 祺聞其事... 書曰 世祖皇帝... 釐降帝女於忠烈王 且許以不革國俗 以至於今... 二十四年 [1364]...以大兵一萬圍義州爲崔瑩等所敗 一軍皆沒

新元史 卷二十六 本紀 惠宗四 至正二十四年 春正月 [1364] 朱元璋自稱吳王 是月 崔帖木兒與 高麗人戰於定州敗績 ... 三十年 [1370] 惠宗崩於應昌 皇太子即皇帝位... 改元宣光... 宣光元年 明太祖洪武四年也 [1371] 遼陽行省...降於高麗 十月 高麗兵陷五老山寨... 二年 [1372] ... 大破明...兵於嶺北自是明兵不復渡漠

²⁴ Henthorn (1972: 129) 인용.

받아오던 고려의 (철령 이복) 동북 변경지대 까지도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에 분개한 최영은 요동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이성계를 부원수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압록강 어귀) 위화도에서 군대를 되돌려 최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아 마침내는 신유교를 신봉하는 지식인 관료들에 의해 새로운 조선 (朝鮮 1392-1910) 왕조를 시작하는 왕으로 추대되었다. 조선은 압록강 아래의 영토는 모두 확보하였으나, 명 나라와 친선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하 유역을 포기하고, 명 나라와의 군신관계를 받아들였다.²⁵

A.7.3. 한족 왕조의 복귀

농민 출신 주원장(r.1368-98)은 양자강 하류 지역의 반란군 지도자로 출발하여, 명 나라 (1368-1644)를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제위를 이어받을 후계자 한 명만 수도인 남경에 남겨 두고 나머지 아들들은 북방에 봉토를 주어 변경을 지키도록 하였다. 전방에서의 전투 경험도 많고 일반 민중에게 평판도 좋았던 넷째 아들(朱棣 r.1402-24)이 조카인 어린 황제(r.1398-1402)를 죽이고 3대 황제(永樂帝/成祖)가 되어, 자신의 봉토이었던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초기 명 나라는 원의 십진법으로 된 군대 조직을 답습하고, 2백만에 달하는 세습적 군호에게 봉토를 배정 해 자급자족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유지했다.²⁶ 1409년, 영락제는 10만의 군대를 보내 동 몽골을 공격하였다. 1410년, 영락제는 손수 50만 군대를 이끌고 동 몽골을 괴멸시켰다. 1414년에도 오이라트 몽골을 상대로 원정군을 조직해, 케룰렌 강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²⁷ 1422년, 영락제는 또다시 동 몽골에 대한 대규모 정벌을 수행했다. 1424년에 5번째로 유목민 정벌 전쟁에 나섰는데, 그것이 명 나라 마지막의 초원지대 원정이었다. 영락제는 북경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죽었다. 영락제의 정복 업적은 진 시황제와 한 무제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락제 후계자들은 취향이 전혀 달라, 다시는 초원지대에서의 전쟁을 시도하지 않았다.²⁸ 만리장성을 대대적으로 수리-확충하는 노력은 이들의 수세적인 방어 심리를 잘 나타내는 것이다.

²⁵ 최영은 1388년에 경쟁자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Crossley(1999: 87)는 많은 여진족들이 조선이 압록강 주변에 설치한 수비대에 가담하였으며, 흔히 한국 성을 쓰면서 교역에 종사했다고 말한다.

²⁶ Hsiao (1978: 4)

²⁷ 영락제는 이슬람 돌궐족 출신인 정화(鄭和)로 하여금 1405년부터 1423년까지 7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함대를 이끌고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30여 개국을 순방하도록 하였는데, 첫 항해에 26,800명이 동원되었다. 남경의 조선소에서 2,000여 척의 배를 건조했는데, 그 중 100척은 인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대형 보선(寶船)이었다. 길이가 370-440 피트, 폭이 150-180 피트, 무게가 3,000톤, 높이 90 피트에 달하는 4-9개의 돛대, 16개의 방수 칸막이 방, 거대한 선미(船尾)의 방향타 등, 엄청난 규모이었다. 영락제 이후의 황제들은 폐쇄적인 유교이념에 젖은 관료들에 설득되어 외국과의 접촉과 통상을 전면 금지했다. 정화의 함대를 항구에서 썩게 하면서 유럽인들만이 전 세계를 탐험하고 개척하도록 한 것이다. Fairbank and Goldman (1992: 137-8) 참조.

²⁸ Barfield (1989: 236-237)

만주족이나 몽골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경은 만주나 몽골초원 지역으로부터 부족들의 군대를 쉽게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복왕조의 수도로서 이상적인 위치에 있었다. 한족 왕조에게도 전투에 능하고 변방 유목민들의 정치 내막을 잘 파악하는 영락제 같은 지도자를 가졌을 때에는 북방에 위치한 수도가 유리한 자산이 되었다. 하지만 영락제가 없는 한족 조정에게는 북경이 아주 불리한 존재이었다. 북경은 중국의 농업자원이 집중되어있는 남쪽과 거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 자체가 최전방의 방어선상에 위치 해 있기 때문에 유목 민족의 불의의 급습을 받을 위험이 컸다. 1449년에 명나라 영종(r.1435-49)이 오이라트 몽골에게 생포되는 수난(토목보의 변)은, 한 고조가 기원전 200년에 평성에서 흉노족에게 포위되었던 사건을 상기시켰다.

영락제가 죽은 후에는 초원시대에 대한 원정을 감행하지 못했고, 북동쪽 혹은 북서쪽 변방 지역을 직접 통치 하지도 못했다. 그러면서도 명나라는 유목민족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였다.²⁹ 명 지배자들은 송 조정이 거란-여진-몽골 등에 엄청난 물자를 바쳤음에도 북 중국을 상실했고, 마침내 송 나라가 몽골에게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조공물자의 제공이란 것이 단지 유목민족의 힘을 길러주어 결국 한족 왕조를 멸망시키게 한다고 믿었다.³⁰ 그러나 명 조정 역시 유목민족에게 조공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 군대를 양성하거나 장성을 축조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방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명 나라는 마침내 몽골 부족장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조공물자의 제공, 변경교역의 허용, 부족장들에 명에 직함 수여 등을 통해 초원 지대의 분열된 정치체제를 고착화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했다.³¹

원 나라와는 달리 명 나라는 요동과 요서의 좁은 해안 지역 이외의 만주 땅 전체를 군사적으로 통제할 힘이 없었다. 명 조정은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 고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200여 개의 소규모 여진 부족장들에게 명에 직함을 내려주고 조공 혜택을 주었다.³²

²⁹ "일찍이 한나라 때 흉노 목동 선우(冒頓單于)가 받아내던 세폐(歲幣)가 전례가 되어, 북송과 남송은 거란의 요, 탕구트의 서하, 여진의 금에게 막대한 규모의 세폐를 매년 바쳤다. 이 모든 기간 중, 각종 선물도 추가로 보내졌다. 선물 규모는 해당 시기의 유목 국와의 상대적 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었다. 비록 선물과 매년 바치는 세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한족 왕조가 주변 유목국가들과의 위험한 전쟁을 벌이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저렴한 방책이 되었다." Jagchid and Symons (1989: 139-40) 인용.

³⁰ Barfield(1989: 246-49)

³¹ 영락제가 죽고 난 후 1454년에 에센이 멸망할 때까지, 명나라는 몽골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다. "그들의 욕심을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했다. 야만족 부족장들은 매년 요구량을 늘렸다. 때로는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는 온갖 사치스럽고 비싼 물품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래도 조정은 가능한 한 그들이 요구하는 물건들을 모두 구해 주려고 노력을 했다. 야만 부족장들은 그들이 요구한 것보다 적게 주면 항상 크게 화를 냈다." Jagchid and Symons (1989: 138) 명사략(明史略) 인용.

³² Barfield (1989: 235-6 and 251) 참조.

Spence (1990: 26)에 의하면, "명나라의 정책은 공식적으로 여진족의 영역을 중국 국경 방어선의 일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1590년에 일본열도를 통일하자, 명 나라를 치러 가니 길을 빌리라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 무사들을 모두 배에 실어 1592년에 한반도로 보냈다. Spence는 “명나라는 조선을,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지켜주어야 할 충성스럽고 종속적인 동맹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기에 몰린 조선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다. 일본 내부에서의 혼란 상태와 조선 해군에 의한 효과적인 보급로 차단 때문에 왜군은 1598년에 조선으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전쟁이 계속되어 세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³³ 명 나라 원군(援軍) 덕분에 임진왜란으로부터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한반도 사람들은 만주의 그들 친족 어깨너머로 한족의 중화 제국을 우려보는 성향이 한층 심화되었다.

명 왕조 멸망 직전인 1600년경, 명 나라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세련된 국가였고, 인구는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1억 2천만 명에 달했다. 명 나라의 문화와 예술이 극치에 달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국가와 경제는 해체되기 시작했다. 중국 본토의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를 가져온 사람들은 동 만주의 여진족이었다.

동아시아 역사: 왜곡(歪曲)의 시정(是正) ©2012 홍원탁(洪元卓) 서울대 명예교수 (<http://www.HongWontack.com>)

부로서 획정을 해놓고, 여진 부족장들에게 명예 직함과 변경 교역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다.”

³³ Spence (1990: 18-19) 인용.